

 교육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보도일시	배포즉시	담당부서	유아교육정책과장
배포일시	2017. 9. 14.(목)	담당과장	하유경 과장(044-203-6445)
대변인실	044-203-6588	담당자	사무관 백봉현(044-203-6498)

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, 이제는 평창입니다.

교육부차관 시립유치원 휴업 대비를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- 시도별 상황 점검 및 교육부·교육청 - 관계부처지자체 공동 대응 방안 논의 -

-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9월 14일(목)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·도 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(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, 경기도청)이 참가하는 시립유치원 휴업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.
- 먼저,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,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고,
 - 시·도 교육청 역시 시립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·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.
- 아울러,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(시·도 교육청) 및 보건복지부·여성가족부(시·도청) 간 휴업대비 공동 대응방안을 강조하였고,

- 특히, 시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(9.18) 뿐만 아니라,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(9.25~9.29)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- 이에 시·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,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나, 만약의 수요를 대비하여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한 협조를 요청하였고,
 -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는 시·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 후,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마지막으로 박차관은 시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들이 깨닫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하며,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고 학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.



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백봉현 사무관(☎ 044-203-649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